

“본디 모습 그대로 후손들에게…”

산문박의 禱

문화재수리(드잡이) 홍정수 씨

들어올려 바로잡는다는 ‘드잡이’는 기율이 가는 문화유산을 본래의 모습대로 반듯하게 교정해 놓는 문화재 수리공을 일컫는 말이다.

문화재분야도 과학화·기계화되면서 드잡이들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지만 우리 문화재에는 드잡이들의 손맛이 어울린다고 강조하는 사람이 있다. 선조들의 피와 땀으로 창출해낸 문화유산들을 아내보다 자식보다 더 아끼고 사랑한다는 드잡이 홍정수씨(56).

옛장인 혼 절로 느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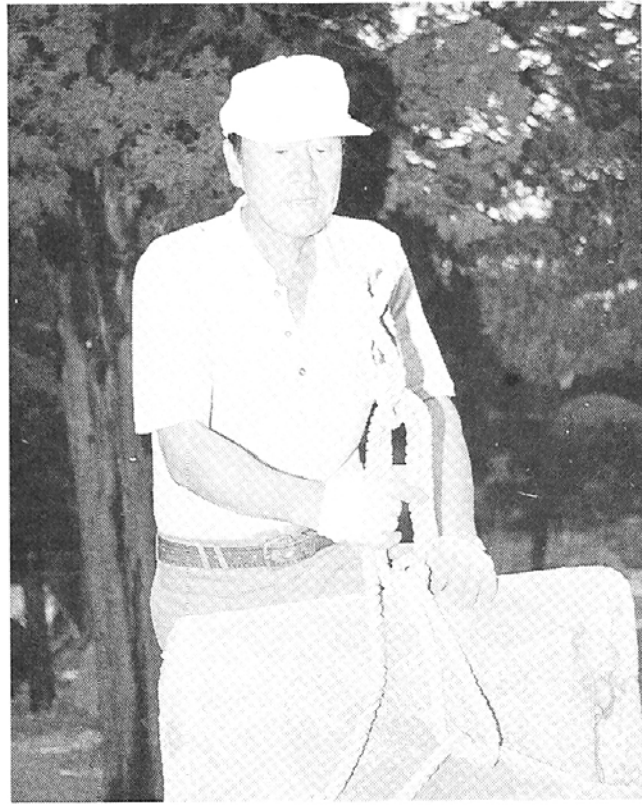
“나에게는 전국이 수행도량이고, 문화유산들이 화두꺼리입니다. 신라 때의 탑을 만나면 신라인으로 돌아가 화두를 풀어야하고 고려의 탑을 만나면 고려인으로 돌아가 화두를 풀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세간의 모든 잡념을 떨쳐 버리고 시공을 초월한 수행자에 버금

의 것에 대한 우수함과 신비스러움에 길들여지고 매료됐기 때문입니다.

“드잡아 올린 것이 아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귀신같이’ 원형 그대로의 모습으로 재복원될 때의 환희심은 어떤 문자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보수 작업하기전 문화재의 건립연대, 지형의 특성, 돌의 재질, 부식상태 등을 세밀히 검토하고 정확한 진단을 내릴 때 가능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돌덩어리와 씨름하며 거칠어지고 굳은살이 박힌 홍정수씨의 손에서는 우리문화의 정취와 숨결을 느낄 수 있다. 검게 그을려 우직하면서도 강렬한 그의 손이 문화재들을 다룰 때면 마술손이 된다. 한마디로 그의 작업과정은 ‘대수술’을 방불케한다.

홍정수씨는 남대문 시장에서 여섯살 때 피복장사를 하던 시절, 매부 김천석



작업 시작하면 묵언삼매... “완벽하게 드잡아 올리자”

는 자세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모든 작업이 순조롭게 됩니다.”

그가 복원한 탑들은 때론 그 자리에 본래의 모습대로 변함없이 있는 것 같고 때론 옮겨진 것 같으면서도 본래의 모습 그대로 여여(如如)하다. 이처럼 최소한의 상처와 실수도 용납하지 않고 본디 모습으로 복구하는 일은 드잡이들이 풀어야 할 화두인 것이다.

홍정수씨가 37년간 하루를 멀다하고 전국의 방방곡곡을 다니며 쓰러져가거나 허물어져가는 탑, 당간 등 우리의 문화유산들을 해체 복원해 오고 있는 것은 생계유지를 위해서라기 보다는 옛 장인들의 혼이 젖어있기 때문이다.

“오랜세월 갖은 풍상을 겪어온 문화유산들을 본래의 모습대로 들어올려 곧추세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불사는 아닙니다. 수천여년동안 면면히 전해져 오는 문화재들은 한순간의 실수로 인히 풀이될 수 없는 역사의 큰산처럼 돌아오기 때문에 이 상처를 최소화하고 곧추세워 놓는다는 것은 후손으로 서 부여받은 절대적명령의 과제입니다.”

이처럼 홍정수씨가 전국의 산과 계곡 들녘을 민행(?)하며 드잡이 생활만을 고집해온 것에는 남다른 이유가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문화재들을 하나씩 해체 복원해 오는 동안 어느 누구도 느낄 수 없는 선조들의 장인정신과 우리

드잡이로 시공 넘나들기 37년 신라인도 되고 고려인도 되어 탑·당간등 복원 ‘마술손’

씨가 이끌어 경험한번 없던 문화재 보수공사에 ‘실직’을 맡으면서 드잡이로서 첫발을 내딛게 됐다.

국보호 남대문의 보수공사에 동참한 것이 그의 잊을 수 없는 체너작이다. 그 뒤로 충무 세병관역 석굴암, 불국사, 금마왕굴암 등 근세에 진행된 웅대한 문화재의 보수작업에 빠져 본 일의 거를 없을 정도다.

인적이 없는 산골짜기에 버려진 채 묵묵히 역사의 뒤안길에서 비와 바람을 맞으면서 온갖 풍상을 견뎌야 했던 탑들만도 백여기 넘게 다시 세웠다. 이런 문화재들은 홍정수씨의 손을 만나면 ‘흔들림 없는’ 유산으로 새로 태어나 또다른 후손들 앞에 당당한 모습을 드러낸다.

“세월이 흐르다보니 우리 드잡이들에게도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요즘은 삼층석탑정도 드잡아 올리는 것은 아이들 장난감 다루듯 하지요. 크레인이란 기계가 생겨나 어떤 육중한 무게도

단순에 들어올리고 한달 정도 시간이 소요되던 공사에 1주일이면 거뜬히 해치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화유산들이 길어진 산중이나 높은 산사에 주로 자리하기 마련이어서 이러한 현대장비가 무용지물이 될때가 대부분이다.

석조문화재에 새생명

그렇다면 홍정수씨는 40년 가까이 사용했던 원시적인 도구들을 사용해야만 한다. 1백킬로그램에 가까운 돌로 만들어진 ‘가구리’는 연자방아처럼 생계 습돈 이상의 무게를 끄떡없이 들어 올린다. 게다가 로프, 도르레 등 기본적인 연장만도 한집이 넘는 정도다. 이렇게 모든 연장의 준비가 완료되면 홍씨는 본격적인 작업에 몰입한다.

그는 먼저 무너질 것에 대비해 사방에 나무를 맞대어 붓고 선조들에 대한 감사와 원만한 불사회향을 위한 합장례를 올린다. 그리고 탑을 한층한층 해

체할 때마다 ‘각목자루’를 바치고 ‘가새’도 설치한다. 또 운반에 지장이 없도록 마당땀질을 해놓고 앉혀진 부위는 새 돌로 맞춰 넣는다.

“돌같은 화강석이라도 철분이 얼마나 함유돼 있는지 비중이 높은지 낮은지 세밀한 검사 끝에 본래의 재질과 가장 유사한 석재를 사용하는 것이 문화재 보수의 원칙입니다.”

아무리 작은 소재라도 이끼진 돌과 같은 질감으로 이끼질이 느껴지지 않게 본래의 모습으로 복원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문화재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과정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러한 드잡이 기법에 대한 문헌한장 남아 있는 것이 없어 드잡이들의 작업과정은 매사 신중하고 철저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행여 풀이라도 끊어지면 수백년, 수천년된 문화재가 한순간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홍정수씨는 작업을 시작하면 회향할 때까지 묵언정진하는 수행자처럼 한마디 말도없이 오직 문화재들과 소리지르는 대화를 하면서 삼매의 세계에 빠져든다.

드잡이 해놓은 문화재들이 다시는 후손들의 손을 필요로 하지않을 만큼 다져 놓아야 한다는 것이 드잡이 홍정수씨의 철칙이다.

김종근 기자

히노애락을 버리면 무엇이 남는지

스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사람마다 각자의 교육정도, 환경에 따라 느끼는 것이 다 진실된게 없으니 그걸 다 버림으로써 평화를 찾고 참나를 발견하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중생들이 생의 희노애락에서 벗어나려면 남는 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김동기·캐나다 밴쿠버)

남아있지 않으면서도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것을 보세요. 여에게 말하고 여에게 움직이지요? 길을 갈 때 발자취를 짚어지고 다니지 않지요? 놓아버린다, 버리지 않는다 함이 없이 그냥 걸어 다니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것도 그와 같으니 무엇을 걱정하십시오? 그냥 여에게 놓인채로 돌아가고 있을뿐입니다.

그러나 남아있다, 무엇이 남느냐, 남는게 없다는 말이 필요없습니다.

삼이 그런줄 알고 그렇게 실천하신다면 그 맛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 처사님이 짜장면 맛을 전혀 모르고 있다 합시다. 내가 짜장면의 맛이 어떻더라

끓으면 바닥 물까지 산소 공급이 잘되더라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 사는 법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처를 이룰 수 있는 마음이기에 파도가 있고 열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이치를 알게되지 않습니까. 생활하는 가운데 환희심 넘치는 것만 바라지 말고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도리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어떤 고난이 오든 싫어하지 말고 내 영원한 친구 주인공이 다 알아서 한다고 믿고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연·주인공에 대해 알고싶어요

저는 단학을 공부하다가 불교와 인연이 되었습니다만 불교의 가르침도 하나의 고달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가지 여름에는 인연에 대해서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또 무엇입니까?

(김종문·인천 부평구 구산동)

불교가 국한된 종교인줄 아시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의 ‘불’ 하면 영원한 생명의 근본을 말함이고 ‘교’ 하면 나름의 도리를 가르친 말씀을 뜻합니다. 그러나

지 상 상 답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학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문이 나타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사신·팩스로 보내주시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미음신원 대령스님께 묻고 답을 통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하고 얘기한다면 처사님은 짜장면이 뭘데? 하실 것이고 한번 먹어보아야 할겁니다.

그렇게 한번 먹어보고나서야 그 맛을 알 것이고 또 찾게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남느냐고 궁금해하기 이전에 짜장면을 직접 먹어보고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환희심을 계속 간직하고 싶은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다보면 묘법이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또 환희심이 넘치는데 이 환희심을 지속적으로 평생 유지할 방법은 없는지요?

(채선희·대구 달성군 논곡면)

하긴 묘법이란 묘법이지만 그 또한 그 사람 생각하기에 달린 것이지요. 또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묘법입니까? 묘법이니 선반 위에 올려 놓으시겠어요 꼭꼭 싸서 숨겨 놓으시겠어요? 내가 있으면 묘법도 있습니다. 내가 없어서 법을 대하지 않는다면 나쁜 일, 좋은 일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법이요 각자의 법입니다. 그대로 생활의 법이구요.

또 환희심을 늘 간직하고 싶으시는데 물건도 아니고 어찌지요? 앞에서 말했지만 맛을 보고나서 그 맛을 간직합니까?

저 호수의 물이 때로는 얼어붙기도 하고 때로는 물결치기도 하는데 얼어붙었을 때가 맞느냐 물결칠 때가 맞느냐 하시겠습니까? 물결도 맞고 얼음도 맞지요. 호수의 물이 잔잔하기만 하다면 물속에 사는 생명체들은 산소가 부족해서 애를 먹는데 파도가 치고 들

어디에 국한된 그런 용어가 아니라 진리 바로 그것이지요.

또 인연이 뭐냐고 간단히 물었으니 간단히 대답하지요. 눈으로 보는데 귀도 한몫 거들었다고 눈과 귀가 인연이지요. 같은 버스를 타고 가는 것도 인연입니다. 또 내가 가끔 비행기 프로펠러에 밧대어 말한다면 프로펠러가 돌아가는데 거기에 무엇이 붙을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붙을 자리가 없습니다.

신나 좋다는 하는 문제는 그렇습니다. 나는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 가을에 나뭇잎 떨어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가을에 잎 떨어진다고 그 나무를 죽었다고 하겠습니까? 가지도 죽고 뿌리도 죽었다고 하지 않지요. 뿌리를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하고 보고 듣고 마음을 내서 질문을 하고 연방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소용돌이처럼 잘잘못 따질게 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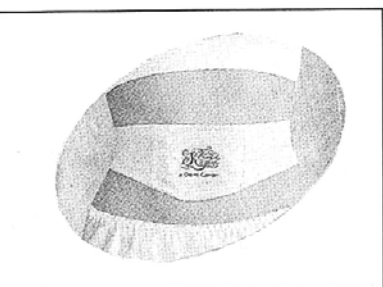
인간의 뿌리는 체가 없이 공했기에 달리 어디에 존재하는게 아니라 그대로 불·법·승 삼보요 한 생각에 문수·보현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 ‘공’자 주인공 해도 되고 백지라도 좋고 이름을 뭐라하던 상관없습니다.

다만 그 뿌리로 돌아가고 백지 속으로 뛰어 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고 맡기는 도리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든 땅이 꺼지든 상관하지 말고 나는 본래 공하여서 체가 없다는데 개입할 내가 무엇이며나 하는 배경으로 눈도 감쪽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자유인인 백지에 연필로 쓰고싶은대로 쓸수 있게 됩니다.

여성 질병의 원인과 항요법

항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항비 (배꼽)에 항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항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항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항요법 항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지 않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빠르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 있다. ()
 - 18. 당뇨와갑상선성고통병이다.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오.

■두통·생리 (송파구 이남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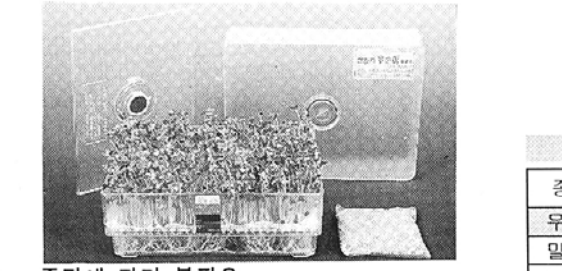
저는 20년이 넘도록 두통으로 고생하였습니다. 하루도 아프지 않은 날이 없어서 여러가지 치료방법을 다 써 보았지만 별효과를 보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던 차 아는분을 통해서 항비라는 조그마한 팩을 배꼽에 차머는 모든것이 좋아질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착용했습니다. 3일이 지나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기 시작하더니 정말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생리도 불순했는데 생리도 정상이고 색깔도 너무 맑고 깨끗해져서 나 자신이 놀랄정도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드셔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신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품문의: (株)고려물산, 한국 방한연구소 / 수신자 부담 080) 200-4545, 02) 755-9821

수입 콩나물 콩을 의식한 농민들이 지난해 콩을 많이 심지 않은 관계로 지금 콩구하기가 어렵고 콩값이 너무 올랐습니다. 이럴 때 우리집 안방의 주말농장, 무순이를 길러드립니다.

집에서 손쉽게 길러 먹을 수 있는 실용신안권 17686, 25863호

한민족 무순이 재배기



■1분간 안치고 3~4일 기다리면 살아있는 비타민 A, B, C 무순이 탄생

●무순이 영양가 분석표●

종류	비타민A (IU)	비타민B (mg)	비타민C (mg)	키로틴 (ug)	칼슘 (mg)	인 (mg)	질 (mg)
무순이	2,000	0.25	70	1,700	140	65	1.2
말 고	40	0.02	50	72	14	12	0.4
알 감	33	0.02	15	60	19	27	0.3
토마토	130	0.03	20	240	3	18	0.2
양배추	33	0.05	50	60	45	22	0.4

(과학기술원 식품조사부 분석결과에 의한 자료)

- ◆중간에 관리 불필요
- ◆재배후에도 물이 깨끗
- ◆무동력 무고장 평생사용
- ◆모든 씨앗 재배 가능

무순이용 무우씨앗 책임공급 - 1년치 14,000원
발아 불량시 100% 환불

가격 재배기 + 무우씨앗(1년치) = 47,000원 → 특별할인 43,000원
전화 신청하시면 바로 보내 드립니다.

온라인 농협 123-02-177220 정락훈

먹는법 ■된장이나 마요네즈에 찍어 드시거나
■샐러드, 햄버거, 비빔밥, 비빔국수, 부페식등 온갖 요리에 생체로
■식당에서도 인기가 좋습니다.

자매품 콩나물 전용재배기 A형 (28,000원) B형 (38,000원)도 있습니다.

우리 콩나물 살리기 운동본부
TEL: (0331)293-2280(대)
FAX: (0331)293-5944
경기도 화성군 봉담면 왕림리 388